

빗썸  
기테크노미

2022.08.10  
수요일

# 블랙록, 가상자산 기관장세 다시 불 붙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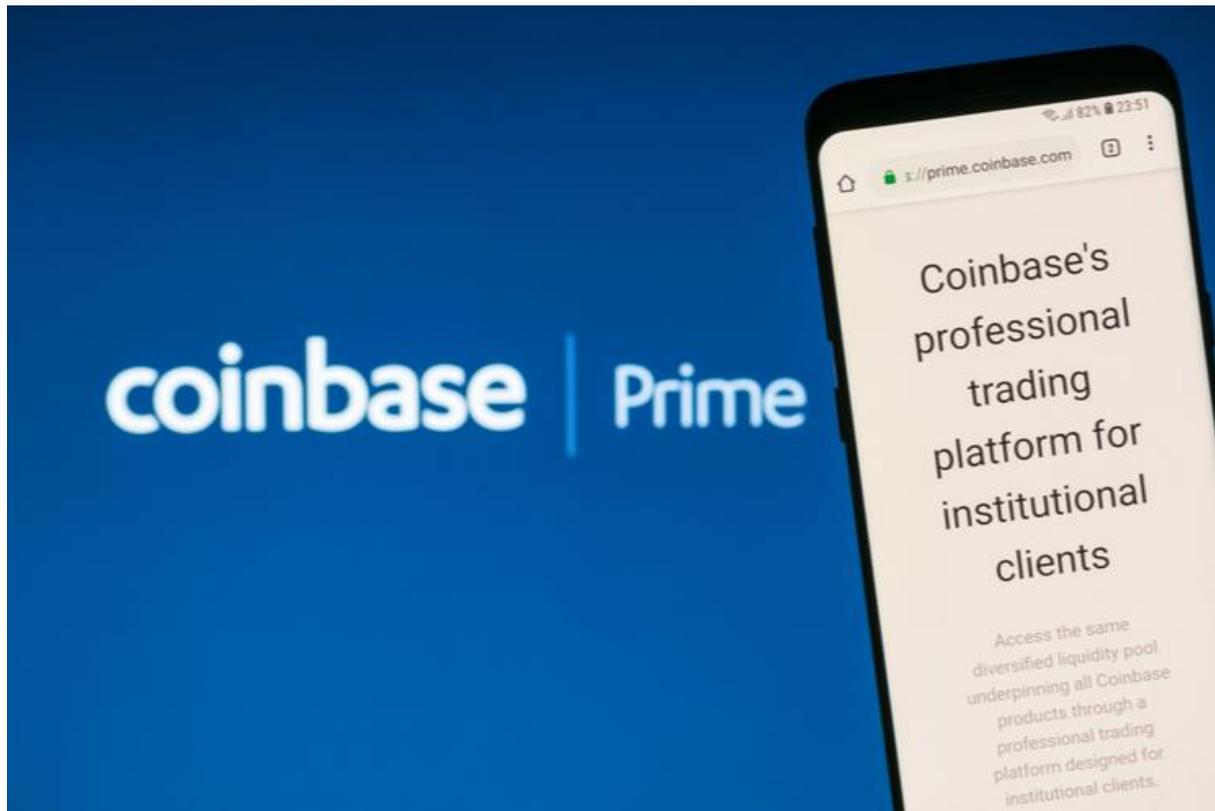
BlackRock

# 기관투자가  
# 파트너십  
# 비트코인투자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 약세장에 ‘큰손’으로 불리는 기관투자자들도 슬슬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 시장의 흐름을 바꿀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려 8조 50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주말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블랙록의 투자관리 플랫폼인 ‘알라딘(Aladdin)’과 코인베이스의 기관 지원시스템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연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협업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블랙록 기관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트레이딩(매매)부터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프라임 브로커리지(PBS)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다시피 가상자산 수탁은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때 그 계좌와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한편, 수익률과 잔고 등을 정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주문부터 대차거래, 레버리지 파이낸싱, 투자 유치, 리스크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블랙록의 기관투자가 고객들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직접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코인베이스는 당장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향후 다른 가상자산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파트너십으로 단순히 블랙록의 기관투자가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담보대출이나 차입,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등을 두루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블랙록의 알라딘 플랫폼에는 주로 자산운용사와 은행, 보험사, 연기금, 일반 기업 등 5만 5000곳 이상의 기관투자가 고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엔 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자산 거래만 21조6000억달러에 이르러, 전 세계 거래액의 4%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는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커스 소티리우스 글로벌블록 애널리스트도 “이처럼 광대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알라딘 플랫폼이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이라며 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도 블랙록이 접착하고 있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려는 관심과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블랙록 전략적 생태계 파트너십부문 조셉 찰롬 글로벌 대표는 "우리 기관투자자 고객들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코인베이스와 손 잡고 우리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왜 하필 지금처럼 `가상자산 혹한기(Crypto Winter)`에 블랙록이 이 같은 파트너십을 맺었을까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블랙록이 현 상황을 자사 기관투자자 고객들이 새롭게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제 블랙록에서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릭 리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라 그동안 버블이 끼었던 가상자산시장이 올라갈 때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이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2~3년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것"이라고 점진 바 있습니다. 당장엔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일정부분 거품이 빠지는 시점에 비트코인을 사두면 몇 년 뒤엔 분명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블랙록은 비트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 헤지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초 블랙록은 '블랙록 스트래티직 인컴 오퍼튜니티즈'와 '블랙록 글로벌 엘로케이션 펀드' 등 2개 펀드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트코인 선물을 투자적격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블랙록은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이들 두 펀드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상품선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현금결제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블랙록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팔게 된다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투자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선물 투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 규모를 키우고, 현물과 선물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시장이 균형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 투자 여부, 종목 선택, 투자 시기 등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빗썸코리아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목적  
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